패시브 Comment



고경범

02 3770 3625

gyeongbeom.ko@yuantakorea.com

■ 2월 MSCI 정기변경 발표 Comment

• 리밸런싱은 2/28(금) 진행. 이번 정기변경에서 편입종목은 없이, 11개 종목이 편출. 편입종목이 없는 측면에서 비중변경 종목에 주목 필요. 리밸런싱일 수거래일 전부터 인덱스 효과가 유의적이지만, MSCI 발표일 수급 민감도가 높아지는 경향.

• SK이노베이션은 당사 전망대로 SK E&S와의 합병이 반영되면서 비중 상승 예정. 리밸런싱 수요는 +314억원, 거래대금 대비 0.89배 수준.

• 에코프로머티도 전망대로 유동비율이 재평가되면서 지수에 잔류. 편출 컨센서스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관련 선반영 수요는 easing될 것으로 판단. 리밸런싱 수요는 +216억원 수준. 자사주 비율 변경으로 LG, KT&G, 고려아연 등의 비중 축소에도 주목 필요.

• 삼성 E&A는 신흥국 비중 축소 5위에 랭크. 매도 수준은 -1,241억원 수준으로 추정. 엘앤에프, 금호석유, 엔켐,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케미칼, 포스코DX, LG화학(우)도 전망대로 지수에서 편출.

• 넷마블은 편출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지만, 유동시가총액 하회로 편출. 가능성을 Mid로 제시했던 GS도 지수에서 편출.

• 펀더맨털의 적정성보다는 Size 이슈에 투기적 포지션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MSCI 지수 편입으로 이어진 Case가 5월 정기변경 전에도 시도될 가능성은 높게 판단. 특히 2월말까지 피드백 수렴 중인 유동비율 방법론 개정 관점에서 보면, HD현대마린솔루션 등의 대형 IPO 종목은 오버행 선결과 관련 개정안을 극복 필요. 즉, 향후 MSCI 신규 편입은 대형 IPO 편입보다는 스몰캡 종목의 승격에 기반한 편입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

• 레인보우로보틱스(7.7조)는 시가총액이 지수편입 허들을 상회. 극단적 가격인상 이슈는 체크는 필요하지만, 편입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는 상황. 다만, 최근 시가총액 급등을 보면 MSCI 편입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유효할지는 의문.

• 스몰캡 승격 허들 기준은 6.7조원 수준으로 추정. 높아진 허들에서 보면 삼양식품(6.1조) 등에서 관련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 LIG넥스원(5.8조), 두산(5.5조) 등의 종목의 시가총액 변화도 주시할 필요.

[표 1] MSCI 비중 상향조정 상위 (단위: 억원, %)

구분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리밸런싱 수요	거래대금 대비	시가총액 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A096770	SK 이노베이션	353	182,601	314	0.89	0.17	-3.0	11.4
	A450080	에코프로머티	342	48,678	216	0.63	0.44	-8.5	-35.7
	A005940	NH 투자증권	77	47,585	107	1.39	0.22	7.5	6.4
	A196170	알테오젠	1,735	201,545	28	0.02	0.01	22.1	-15.2
	A011200	HMM	383	162,199	19	0.05	0.01	-2.6	16.9
	A028300	HLB	757	98,672	11	0.02	0.01	-6.5	24.5
	A035720	카카오	1,756	190,109	7	0.00	0.00	17.2	27.2
	A259960	크래프톤	493	179,654	5	0.01	0.00	11.9	18.1
	A323410	카카오뱅크	179	112,566	2	0.01	0.00	10.3	12.1

[표 3] 하향조정 상위 (단위: 억원, %)

구분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리밸런싱 수요	거래대금 대비	시가총액 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편출	A028050	삼성 E&A	253	36,828	-1,241	-4.90	-3.37	5.1	5.2
편출	A066970	엘앤에프	287	29,292	-923	-3.21	-3.15	-1.8	-31.7
편출	A078930	GS	67	36,887	-787	-11.72	-2.13	0.8	-4.8
편출	A011780	금호석유	140	30,751	-764	-5.45	-2.49	18.7	-0.4
편출	A348370	엔켐	268	22,795	-757	-2.82	-3.32	-26.1	-29.0
편출	A128940	한미약품	136	33,885	-749	-5.52	-2.21	-2.4	-22.0
편출	A251270	넷마블	53	39,625	-607	-11.35	-1.53	-11.0	-8.9
편출	A302440	SK 바이오사이언스	61	37,920	-583	-9.62	-1.54	-5.5	-1.9
	A033780	KT&G	231	136,018	-488	-2.12	-0.36	-0.5	-11.1
편출	A011170	롯데케미칼	58	23,227	-458	-7.91	-1.97	-7.3	-31.4
편출	A022100	포스코 DX	130	29,039	-453	-3.49	-1.56	-4.4	-23.4
편출	A051915	LG 화학우	39	9,365	-421	-10.89	-4.49	-22.8	-41.0
	A010130	고려아연	390	163,349	-348	-0.89	-0.21	-9.8	-29.9
	A003550	LG	129	107,751	-241	-1.87	-0.22	-7.3	-8.5
	A035420	NAVER	2,102	362,029	-200	-0.10	-0.06	13.1	29.8
	A068270	셀트리온	796	384,678	-161	-0.20	-0.04	-2.9	8.1
	A055550	신한지주	545	247,192	-102	-0.19	-0.04	-1.5	-13.1
	A036570	엔씨소프트	118	39,605	-84	-0.71	-0.21	-3.1	-13.7
	A000270	기아	1,181	373,017	-46	-0.04	-0.01	-11.2	-0.8
	A006800	미래에셋증권	40	47,937	-14	-0.35	-0.03	0.5	-4.2
	A042700	한미반도체	1,517	96,324	-6	-0.00	-0.01	-11.7	13.2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작성자: 고경범).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